

2011 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32  
에베소서에서  
(4)  
교회의 남편

성경: 엡 5:22-32

- I. 에베소서 5 장 22 절-32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신 것을 본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사 54:5, 62:5, 렘 2:2, 3:1, 14, 31:32, 겔 16:8, 23:5, 호 2:7, 19, 고후 11:2.
  - A. 아가서에서 추구하는 이는 그녀의 사랑하는 이를 거둬 말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분,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1:16, 2:3, 5:16, 8:14, 엡 1:6.
  - B. 아가서에 있는 사랑하는 이의 예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으로 계시되고 믿는 이들이 그분의 배필, 그분의 아내로 계시되는 신약에서 성취된다—고후 11:2.
    1.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하고 우주적인 남편이시다.
    2. 지극히 사랑스러운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매료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하고 관심해야 하며, 아무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분을 대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엡 3:17-19.
    3.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해야 하고, 우리의 온 존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분,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막 12:30.
- II.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의 구주이시다—엡 5:23.
  - A. 그분이 머리이심은 권위의 문제이고, 그분이 구주이심은 사랑의 문제이다.
  - B.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께 복종해야 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23 절.
- III. 25 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생겨난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구속과 생명 분배를 위한 것이었다—요 19:34.
- IV. 교회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시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려 하신다—엡 5:26-27.
  - A.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이 분별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거룩하게 하심의 주된 방법은 변화와 성장과 건축이 수반되는 적셔짐이다—26 절, 2:21-22, 4:15-16.
  - B.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으로 교회를 씻으시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5:26.
    1. 이러한 씻음은 주로 점들—타고난 생명에서 나온 것들—과 주름들—납음의 표시들—을 처리한다.

2. 우리가 말씀에서 받는 자양분은 타고난 생명으로 야기된 결함들과 낡음으로 야기된 주름들을 내적으로 씻는다. 그러한 씻음에 의해 교회는 온전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27 절.
- C.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실 것이다—27 절.
1.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3:21 상.
  2. 교회는 부활하고 높여지고 변화된 인성과 연합되신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 될 것이다—4:24.
  3.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 a.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에게서 오직 아름다움만을 보실 것이다—아 4:7.
    - b.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빛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6:4, 10.
    - c. 참된 아름다움은 인성을 통해 나타나는 신성한 속성들의 표현이다.
    - d.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요 6:57 하.

**V. 교회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보양하시고 보살피신다—엡 5:28-30.**

- A. 그리스도께서 보양하시는 것은 그분의 풍성으로 공급하시는 것이다—29 절, 3:8.
1. 우리가 보양받을 때 무언가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교회를 보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내적 필요를 채우신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먹이심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요 6:63.
  3.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보양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데서 오는 보양하심을 체험해야 한다—엡 3:17 상.
- B. 그리스도께서 보살피시는 것은 그분이 따뜻하게 해 주시어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다—5:29.
1. 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드러움과 달콤함과 사랑스러움을 누릴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신다.
  2. 그분은 그분의 부드러운 따뜻함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 그분의 보살피심은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고 평온하게 한다.
  3.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져와 우리를 보살핀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체험할 것이다—25 절, 행 13:1, 고전 1:2.
  4. 보양과 보살핌은 함께한다. 보양을 통해 우리는 생명 공급을 내적으로 누리고, 보살핌을 통해 우리는 달래고 위로하는 분위기를 외적으로 체험한다.
  5. 이렇게 보양받고 보살핌 받는 교회는 강하고 건강할 것이다—계 3:7-13.
    - a. 진정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섬세하고 부드럽고 친밀하고 실지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특권을 갖는다.
    - b.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방식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